

희망·위로 전하는 천상의 소리, 광주서 울려 퍼지다

ACC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창립 527주년 맞은 세계적 합창단 제주항공 참사 추모 위해 곡 변경 성가·민요·영화 주제곡 등 선배 다국적 단원의 '아리랑' 감동무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합창단이 광주를 찾아 천상의 소리로 희망과 치유를 노래했다.

새해를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준비한 ACC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공연이 지난 17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렸다. '빈 소년 합창단' 단원들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참사와 국정의 혼란 속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관객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했다.

올해 창립 527주년을 맞이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유네스코 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돼 역사와 전통, 음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슈베르트와 하이든이 활동하고 모차르트가 지휘자로 함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498년 막시밀리안 1세의 칙령에 따라 빈 궁정성당에 소속된 성가대로 시작한 '빈 소년 합창단'은 프랑스의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독일의 뮐러 소년 합창단과 함께 세

계 3대 합창단으로 꼽힌다.

이번 ACC 신년음악회는 전북 익산, 부산, 서울 등으로 이어지며 여섯 차례 진행되는 '빈 소년 합창단' 전국 순회공연 중 첫 무대다.

이날 오후 7시께 공연을 앞둔 ACC 예술극장 극장1 로비는 세계적 명성을 지닌 '빈 소년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찾은 관객들로 북적였다. 특히 가족·연인 단위 관람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객석은 한 석의 빈자리도 없이 가득 채워졌다.

이번 공연은 '빈 소년 합창단'의 장기인 성가를 비롯해 뮤지컬, 오페라, 각국의 민요, 대중적인 영화 주제곡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채워졌고,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단원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뤘다.

공연 시작에 앞서 지미 치양 지휘자가 무대로 나와 올리버 슈테히 지휘자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전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한국 투어에 함께 하지 못한 올리버 슈테히 지휘자가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함께했던 지휘자를 잃은 단원들의 상심이 크다. 오늘 우리는 올리버 슈테히 지휘자를 기리기 위해 공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항공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



지난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ACC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공연이 열렸다.

들의 낮을 기리기 위해 1부에서 선보이기로 한 곡 중 슈베르트의 '마왕'을 추모곡인 모차르트의 '아베 베룸'으로 변경했음을 알렸다. 이같은 결정은 ACC재단과 지미 치양 지휘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지미 치양 지휘자가 사전 설명을 끝마치자 '빈 소년 합창단'의 단원 22명이 무대에 올랐다. 이 중 3명은 한국인 단원이었다. 관객들은 박수로 이들을 맞이하며 다소 숙연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이 시작됐다.

지미 치양 지휘자의 피아노 선율에 맞춰 '빈 소년 합창단' 단원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

공연의 1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 작품번호 437'을 시작으로 로베르트 슈만, 프란츠 슈베르트, 요하네스 브람스 등이 작곡한 익숙한 성가들의 멜로디가 극장을 가득 메웠다.

객석의 관객들은 '제주항공 참사' 추모곡으로 선정된 모차르트의 '아베 베룸'이 들리자, 위로와 슬픔을 공감하며 음악과 호흡했다.

1부가 끝나고 15분의 인터미션(휴식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2부가 시작됐다. 2부는 우리나라의 민요, 유럽 민요, 친

숙한 팝송 등으로 구성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2부 초반에는 한국인 단원 3명이 무대 앞으로 나와 '아리랑'을 부르며 감동을 선사했다. 이들의 무대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큰 호응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어 대중에게 익숙한 영화음악들이 단원들의 미성으로 흘러나왔다.

영화 '메리 포핀스'에 나온 '침침 체리', 영화 '바비'에 나온 곡으로 유명한 빌리 아이리시의 그래미상 올해의 노래 수상곡 'What Was I Made For?'(나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일까요?)는 차분하면서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이후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 주제곡 '언더 더 씨'를 선보이며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전환됐다. 지미 치양 지휘자는 공연 중간 관객들에게 호응을 유도했고 관객들도 이에 박수로 박자를 맞추며 화답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상징적 민요 '아리랑'을 다국적으로 구성된 '빈 소년 합창단' 단원들이 한국어로 다시 합창하며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사고로 침통한 관객들의 마음에 위안을 안겼다.

마지막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작품번호314'를 선보인 뒤 공연은 막을 내렸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설맞이 동심의 세계로 떠나는 공연 열린다

ACC재단, 동심놀이극 '반달정원'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28-29일

설 명절을 맞아 동심의 세계로 흠뻑 빠질 공연이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8~29일 이틀간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동심놀이극 '반달정원'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반달정원'은 윤극영 작곡가의 창작 동요 '반달'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동요 '반달'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동심을 이끄는 노래극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익숙한 동요들이 극장 가득 울려 퍼지고 이에 관객과 이야기꾼들이 하나 돼 노래로 호흡하며 참여하는 무대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연과 함께 설 연휴 기간 어린이 문화원을 방문하는 관객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도 마련된다.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는 그림과 유머를 결합한 독창적인 드로잉 퍼포먼스 '드로잉 서커스 크로키키 브라더스'가 펼쳐지고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신년음악회 '마음정원 클래식_스윗뮤직가든'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반달정원'은 28-29일 오후 2시에 공연된다. 3세 이상이면 관람 가능하며 관람권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박찬 기자

ACC재단, '들락'의 감성 담긴 생활소품 6종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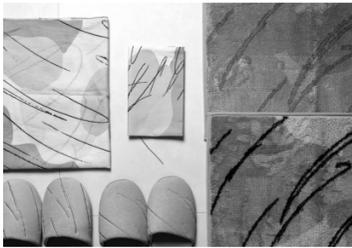
도어매트·룸슬리퍼·우산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새해를 맞아 아늑한 감성이 담긴 생활소품(사진)을 선보인다.

19일 ACC재단에 따르면 ACC 문화상품점 '들락 DLAC'의 시즌 그래픽 상품으로 생활용품 6종이 새롭게 출시됐다.

이번에 출시한 문화상품은 '들락 DLAC'의 주요 색상인 핑크와 블루를 조합하고, 유기적인 드로잉 라인을 패턴으로 상징화해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편안한 분위기의 패션·생활 용품들로 구성됐다.

먼저 실내 분위기를 산뜻하게 연출할 수 있는 '패브릭 포스터'와 '도어매트',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룸슬리퍼' 등은 감



각적인 디자인과 컬러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독서 애호가들을 위한 '북커퍼',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한 '양우산'과 강한 바람에도 견디는 '장우산' 등 일상 속 활용성이 높은 상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시즌 그래픽 상품은 21일부터 ACC 온·오프라인 문화상품점 '들락 DLAC'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ACC 문화상품 브랜드 '들락

DLAC'은 독자적이면서 연결된 아시아의 문화(Dots and Linds of Asia Culture)를 의미한다.

ACC재단은 ACC 전시 및 공연 연계 등 특화상품 외에 매년 한 시즌을 상징하는 그래픽 이미지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디자인의 '들락 시그니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간 수건, 니트 블랭킷, 양말, 예코백 등 들락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담은 상품을 제작해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김선욱 ACC재단 사장은 "새해를 맞아 들락만의 독특한 컨셉과 고유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선보인다"며 "소비자의 일상에 시각적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품 기증 받는다

아시아 문화 관련 실물 자료 등 전시·교육·연구·문화사업 활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문화 관련 문화재적 가치·연구, 전시 활용도가 높은 실물 자료 등을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품으로 연중 기증 받는다.

19일 ACC에 따르면 기증 대상은 아시아 전통문화를 비롯해 전통의복, 음식 문화, 전통음악, 공연, 공예, 종교, 신화·설화, 도시문화, 건축, 세계유산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들이다.

기증받은 자료는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 영구 보존돼 기획전시를 비롯한 교육·연구·문화사업 등에 적극 활용된다.

기증 희망자는 기증신청서와 자료(유물 등) 사진 등 관계 서류를 ACC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하거나 ACC 연구 조사과 자료관리팀 기증담당자(062-601-4533, yeopo81@korea.kr)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데우스리상 ACC 제공